

세계한상대회 ‘국제도시 광주’ 알린다

29일부터 3일간... 국내외 경제인 3000여명 참가

생산유발효과 100억·지역경제효과 1453억원 기대

대회운영 등 문제점 개선... 광주색깔 담은 대회로

세계 곳곳의 경제를 주무르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수천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3 세계한상(韓商)대회’ 개최를 20여 일 앞두고 광주시가 막바지 대회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광주에서 열리는 제12회 세계한상대회는 그동안 서울과 제주, 부산, 대구 등에서만 개최됐으며, 호남권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네트워크’라는 주제 아래 재외동포재단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광주 대회에는 40개국 1000여 명의 동포 경제인과 440개 국내외 중소기업 임직원 등 총 3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 규모가 큰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직접적 생산유발효과는 100

억 원대이며, 장기적으로 지역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453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민선 5기 들어 각종 국제대회 유치에 연이어 성공하며 ‘국제도시’로 급성장한 광주의 도시브랜드를 해외 거주 한인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상대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대회규모가 축소되고, 참가동원과 불만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은 이번 광주대회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실제 지난해 열린 제11차 한상대회 이후 한상대회가 친목도모에 치중하면서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며 위기관이 제기되기

도 했다.

지난 10년간 한상대회를 참가했다는 정진철 미국 로열아이맥스 회장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바뀐 게 없고, 한 발짝도 진전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계한상대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회운영 엉망, 인프라 부족, 불친절 등 다양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전 대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번 광주대회만큼은 전 세계 한상이 만족하는 대회로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다.

시는 이를 위해 기업전시회에 430개 기업 450개 부스를 마련하는 한편 광주 특별산업전시관에 공산업, 가전로봇, 기계금형, 신재생에

너지, 문화콘텐츠, 벤처창업 등 6개 테마 100개 부스를 설치하는 등 광주만의 색깔을 담은 특색있는 대회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 6월 아시아·태평양 30개국 청년 리더 1만여 명이 참석한 JCI 광주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만큼 숙박 등 기본 시설 확보 등 대회준비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자원봉사자를 이전대회보다 3배 이상 보강하는 등 한상대회 참가자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광주 한상대회를 통해 경제적 효과는 물론 국제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한상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 치과산업 신메카로 급부상

내년부터 3년간 250억 투입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광주시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치과산업의 신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국비 100억원 등 총 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돼 치과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이 될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가 광주에 들어선다.

시는 기술지원센터 구축을 계기로 전남대 치과전문대학 미래형 생체부품소재산업 산업단과 조선대 치과전문대학원 치과용 정밀장비 및 부품센터 등 관련 기관과 상호협조를 통해 광주를 전 세계의 치과산업을 대

표하는 도시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고부가 가치사업인 치과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타이타늄·복합합금 센터를 구축해 외지기업 27개사의 광주 이전을 이끌어내는 등 치과산업 집적화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광주에 치과 관련 80개 기업이 입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을 보태고 있으며, 오는 2016년 기술지원센터가 완공되면 관련 기업의 수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광주시는 전망하고 있다.

박영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치과산업은 부가가치율이 40배에 이를 정도로 고부가 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

전남 풍수해보험 가입률 10.8% 그쳐

보험료 부담·홍보부족 이유

전남지역에서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률이 10%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등의 피해가 가혹이나 시설하우스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는 민간 재해보험이다. 2008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나 지자체가 대상자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의 55~86%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나머지를 부담한다.

9월 말 현재 전남지역 보험 가입 건

수는 5만306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도내 단독 주택 가구 수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하고도 48만8000여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10.8%에 불과하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5년 간 이 풍수해 발생지역에서의 보험 가입률을 분석한 결과 전남은 주택의 경우 39.4%, 시설하우스(온실)는 36.2%만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물난리 등을 겪은 10가구 중 4가구가만 보험에 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광목기자 kroh@

1면 ‘여수박람회’서 계속

이마저도 올해 빅오, 스카이라워 등을 재개장하는데 든 예산만 21억 3000만원에 달해 사실상 재개장을 통해 올린 수익은 거의 없는 셈이 된다. 사후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은 없는데, 빅오 시설 등 박람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그나마 남은 재단 재산만 축내야 하는 꼴이다.

특히 여수프로젝트의 경우 지난 2007년 142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1억달러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의 해양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기금은 한 톨도 모으지 못했다.

박람회 폐막 1년이 넘도록 박람회장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정당 재투자를 통한 장기 임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반발도 거세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동추진위원회는 10일 여수 박람회장 정문 앞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박람회장 사후활동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2012명 인간 피 띄기’ 행사를 갖는다.

이들은 “청산 위주로 민간에게 책임을 미루는 사후활동 대책은 잘못됐다”며 “매각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보다는 재투자를 통해 사후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앞서 여수시는 정부가 추진한 박람회장 매각이 잇따라 실패하자 장기 임대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해양수산부, 전남도, 여수박람회재단 등에 전달했다. 감정 평가가격이 4800억원에 달하는 박람회장을 파는 대신, 임대를 통해 사후활동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또 정부에 갇아야 하는 선투자금 중 미상환액 3846억원을 분할 상환하거나 사후활동을 위해 재투자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남도김치, 세계로 날다’를 주제로 중외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20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가 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축제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체험 프로그램인 ‘배추김치 담그기’에 도전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세계인들 명품김치 ‘탄성’... 국제대회로 성장”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폐막

‘남도김치, 세계로 날다’를 주제로 지난 5일부터 중외공원 일원에서 펼쳐진 제20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가 9일 폐막했다.

올해로 20주년 성년을 맞이한 이번 축제의 컨셉은 ‘모심과 나눔’이었다. ‘2013 개막초청 이벤트’인 시민릴레이를 통해 축제 개막식에 광주시민 2013명을 초청했으며, 5개 자치구의

날을 지정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치구 시민한마당’ 행사도 축제기간내 계속됐다.

전국의 음식경연대회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올해의 김치명인 콘테스트’에서는 ‘발효공 배추 백김치’를 선보인 서찬열씨(52세)가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이번 축제 기간동안 광주명품김치 ‘김치광’이 일본업체와 김치 40t(27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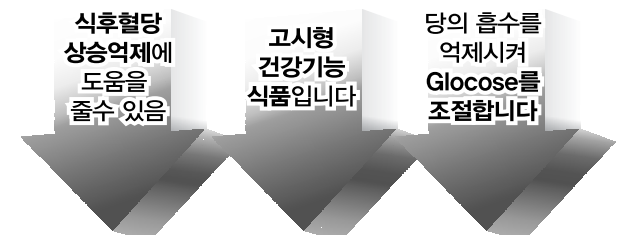
특히 올해로 축제가 20회를 넘기면서 세계인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성장했다는 평가도 이어져왔다.

이번 축제기간동안 ‘외국인 김치문화 탐험’ 프로그램에 500여명의 외국인이 몰리는가하면 세계 50여개국 대학생 120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프랜차이즈 투어단’이 축제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제!!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4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사 | 원 | 모 | 집

사계절 푸르른 양장디, 친환경 나비의 고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 웨이츄레터(신입 및 주임급) 0명
2.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3.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 (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4.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5.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사까지(총원서 조가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7. 접 수 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국창리 산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동양의학수강생모집

Self 건강관리를 위한 힐링강좌!

동양의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

- 동양의학적 치료원리를 이해하여 자연치유력을 회복
- 서양의학과 병원치료의 한계를 극복
- 효과적인 국내외 선교 및 포교활동
- 국내 의료개방 대비와 해외환자의 진출
- 건강 및 대체의학 관련 사업의 소득증대

- * **침구학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주요과목: 침구학개론(침·뜸기초,경락경혈,침구치료),한방기초
- * **동양의학 전문과정(1년~3년)**
주요과목: 중의기초이론, 진단학, 본초학, 방약학, 경험학 등

공개강좌 **광주3기) 10월 11일(금) 14시**

위치: 생촌역 2번출구에서 운전역방향 180m 중앙평생교육원내 2층

산동중의대 중의학 연수생 모집

3년 필업(졸업) 과정

- ◎ 교과내용: 침구학, 침구치료학, 추나학, 해부생리학, 본초방제학, 사암오행, 동씨기혈 등
- ◎ 중국자격증, 면허 취득가능, 중의대 석박사학위 과정 진학가능
- ◎ 해외 한의대 편입 및 미국한 의사시험응시가능
- ◎ 해외 한의사 진출(세계각국에서 한의원 취업 및 창업가능)

* 본 문학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since 1985. 침구학 전문교육기관
CH 아카데미
www.wch.ac.kr 전국대표번호: 1544-5359